



# 돈 돈 돈

이원택 (71, 남가주)

## 1. 돈발

최근 중국에서는 잘나가는 공산당 간부에게 잘나가는 여배우가 수청드는 화대로 10번에 걸쳐 18억 원(한국 돈으로 환산)씩 도합 180억 원을 대납했다는 잘나가는 기업가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180억 원이면 그다지 잘나가지 못하는 중국 남자들이 십팔만 번 정도 오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것은 그다지 잘나가지 못하는 중국 여성의 1800년간의 봉급에 해당한다.

십수 년 전에 중국의 한 중소도시에 갔을 때 그곳의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다. 마치 군대에서 배식을 받을 때처럼 접시를 들고 일렬로 주방을 지나가면 종업원들이 큰 가마솥에서 국수 한 사리 국물 한 국자 그리고 돼지고기 서너 점을 집어주었다. 그것으로 한 끼를 때우는데 그런대로 먹을 만했다. 가격은 한국 돈으로 200원 정도였다. 180억 원어치는 인구 9천만 명이 한 끼 배를 채울 수 있는 금액이다. 성욕에 대해서 무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식욕으로 예를 들어보았으니 이만하면 이제 돈의 가치에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가.

이와 같이 돈이면 쳐녀 불알도 살 수 있고, 귀신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들 악착같은 돈벌레가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살인을 하거나 돈과 목숨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친구나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돈이란 다른 종이나 마찬가지로 끊어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리거나 혹은 밀씻개로 쓸 수도 있지만 돈에 침을 뱉는 사람이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이나 용역, 편리, 편안, 만족 때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거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돈은 인간이 편리하게 잘 살자고 만들 어낸 물건이다. 음식이나 문명의 이기나 지식도 돈이 없으면 획득할 수가 없고 사랑도 자선도 돈이 없으면 베풀 수가 없다. 어떤 곳에서는 돈이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고 어떤 곳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어가는 환자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현대인은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돈의 본질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몇 번 재미를 본 공산당 간부는 숙청이 되고 여배우는 망신을 당하고 기업가는 감옥에 갔다. 수년 전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John Edward, 전 상원 의원도 불륜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선거자금을 유흥비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받았다. 즉 돈이란 것은 어떻게 버느냐 또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덕도 되고 악덕도 된다. 이런 것을 소위 필요악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돈을 습득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복권에 Mega Million JackPot(수백만 땡)이 터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지땀을 흘리거나 요리조리 짱구를 굴려야 한다.

돈에도 냄새가 있어서 유태인은 돈 내가 나는 곳이라면 지옥에라도 따라가고 마피아들은 악마의 돈도 상관치 않는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에서부터 수십억을 사기 친 EnRon의 CEO에다가 용병으로 독재 정권을 유지했던 가다피는 물론 인류 간의 전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땅따먹기 내지는 돈 따먹기인 것이다.

## 2. 돈줄

나는 부자가 죽고 나서 재산 싸움 하지 않은 집안을 본 적이 없고 죽기 전에 전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말년에 유리 결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다. 즉 돈에는 피와 눈물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째째해지고 영악해지고 각박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젊어서는 까짓것! 없으면 또 벌면 되지! 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수전노가 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화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은 세 살짜리도 돈을 주면 좋아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릴수록 효자라고 한다. 돈이 없으면 짜증이 나지만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만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 배가 차면 인간은 포만감을 느끼지만 100

원을 벌면 1000원을 벌고 싶은 것이 인지 상정이다. 세상에서 돈을 취미로 버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다.

그동안 세파를 타고 살다 보니 믿을 건 돈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이 예측 불허한 미래에 대한 방파막으로 사용되고 있다. 돈이 불안의 안정제 역할을 한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이란 생명줄이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만 있으면 개도 명첨지다. 사람 위에 돈 있고, 돈 나고 사람 낳다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돈은 벌기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므로 어벙하게 있다간 대낮에 코를 베이기도 한다. 나는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앞길에서 롤렉스 금딱지를 200불에 샀다가 이를 만에 시계가 서버린 적도 있고 파리의 빼갈 거리에서 성인용 영화를 보러 갔다가 1000불을 빼앗긴 적도 있다.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몰랐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맛보다는 쓰는 맛이 더 짜릿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부자가 삼대 가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돈을 쓰는 재미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다.

술한 전란을 겪으면서 떠들이 생활을 해야 했던 화교들은 많은 현금을 침대 밑에 감춰두었다. 그래서 호떡집에 불이 나면 야단이 나는 것이다. 평생을 행상으로 가난한 인생을 살아온 노파는 20억 원을 남겨놓고 갔단다.

돈을 재미로 모으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없다. 내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서울 명동에 금싸라기 땅 수천억 원을 가진 알부자이지만 수년 전 미국 정부에서 주는 사회보장비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이민을 왔다. 한인타운의 정부 보조 노인 아파트에 살면서 점심은 2불 99전 짜리 자장면만 찾아다니면서 먹는다. 아마도 한국 정부에서 보국훈장 자린고비 상이라도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돈은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한동안 잘나가던 일본의 경기가 폭삭 가라앉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지독한 저축 정

신 때문이란다. 돈의 납발도 문제가 된다. 현재 미국 경제가 허덕이는 것은 그동안 흥청망청 써버린 여파라고 한다. 어떤이는 세계의 빛더미에 올라앉은 미국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로서 세상 곳곳에서 달려화가 똥값이 되는 것을 보면 그 짜수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차 대전 후 독일에서는 돈으로 장작을 사는 것보다 그냥 돈을 때는 편이 더 낫다는 말도 있었다.

### 3. 돈독

종이쪽지 한 장의 위력은 정말로 신기하기가 그지없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100불을 내면 100불짜리 물건을 주고 50불짜리 물건을 사면 20불짜리 두 장 10불짜리 한장을 거슬러 준다. 또 주유소에서 100불어치 휘발유를 넣으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다. 비행깃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1400불만 내면 미국에서 서울까지 어김없이 데려다 준다. 요술 방망이가 아닐 수 없다.

돈의 사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개인은 물론 회사 간혹은 국가 간에도 신용지수라는 것이 있어서 최근에는 쯤씀이가 헤웠던 그리스를 유로화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개성상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돈을 빌려주었다. 개성상인들은 할아버지가 진빚도 손자가 반드시 갚는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수표나 어음도 마찬가지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불보증, 담보, 선불, 후불, 분할지급, 신용장 등등 통화의 종류가 다양하며 돈을 빌리기도 예치하기도하면서 이자까지 계산하게 된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고 돈의 근본은 사회적 협약으로,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지폐에는 In God We Trust(하느님 속에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을 꼭 집어넣게 했겠는가.

은행에서 만 불을 빌린 사람은 거지 취급을 당하지만 천만 불을 빌린 사람은 왕대접을 받는다. 한국의 모 재벌은 적수공권으로 은행은 많고 돈은 무진장이라는 신조 하나로 아주 잘나가다가 줄을 잘못 서서 감옥까지 갔는데 남의 돈 우습게 알다가 패가망신한 좋은 예이다. 돈이란 돌고 도는 것이라지만 세상에 눈먼 돈은 없는 법이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야 할 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애간장을 태우거나 떼어먹힌 경험이 있고 장사꾼이나 사업가들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있으리라. 돈도 돈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진 신뢰감 내지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주지만 돈을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주위에서 보면 평생 구멍가게에서 번 돈을 임답이 좋은 투자가한테 빌려주었다가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떼어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투자가라는 인간은 자기는 먹고 싶은 것 다 사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얼굴이 두껍거나 심장에 털이 난 사람들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노예로 삶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현대사회에서는 파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모로 보호를 받게 돼있다. 나는 경제에는 문외한이지만 어쩐지 법이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법을 부리는 것 같아서 자본주의의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4. 돈길

돈이란 원래 노동에 대한 대가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애를 쓰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다. 노동은 신성하다. 그러나 돈은 신성하지 않다. 이슬람교에서는 이자 받는 것을 치사하게 생각했고 불교에서는 돈을 번뇌의 소굴이라 했다. 기독교에서는 돈을 죄악시했으며 유교에서는 돈을 더럽다고 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짐승을 아귀(餓鬼)라고 부르는데 음식은 유한하기 때문에 포만할 수 있으나 쇠붙이를 먹고 자라는 불가사리처럼 무한한 돈을 먹고 사는 전귀(錢鬼)야말로 결코 만족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불쌍한 짐승인 것이다.

그리고 그 원흉은 인간의 욕심이다. 노동은 유한하지만 욕심은 무한하다. 물질은 유한하나 정신은 무한하다. 따라서 돈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돈을 물질로 착각하는 것은 정신우월론자들의 세뇌 작용 때문이다.

나도 그동안 돈, 돈, 돈하면서 돈을 쫓

아다녔으나 어디를 가나 돈, 돈, 돈에 치여서 돈, 돈, 돈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자승자박이다.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현대인들이여! 그대들은 어느새 돈의 노예가 되었구나.

나는 자본주의 다음에는 노동주의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돈과 기계문명에 염증이 난 인간들이 다음으로 바랄 것은 신성한 육체노동이라고 본다. 인간은 정신적인 희열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에 더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일이다. 돈과 관계없이 땅을 파거나 짐승을 쫓아다니거나 벽돌을 쌓아 올릴 때 그 기쁨은 돈으로도 살 수 없거니와 구태여 돈 들이고 운동할 필요도 없다.

현대인들은 자동차 타고 10리나 떨어진 체육관에 가서 돈 내고 뛰기 운동을 하고 나서 다시 자동차 타고 집에 돌아온다. 그곳까지 그냥 뛰어갔다가 오면 되는 것을 무엇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다. '돈지랄'이다. 최근에 극단 LA에서 공연한 '돈 돈 돈'이란 코미디를 관람했다. 돈이 있어 보이면 딸의 애인까지 빼앗으려 하고 돈의 향방에 따라 아비에게 불었다 자식에게 불었다 하는 여심이 있었다. 돈장난이다.

돈이 많은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없으면 아쉽지만 있으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갑자기 쉽게 번 돈은 오래가는 법이 없고 그 여파로 폐인이 되거나 마이클 잭슨, 휴트니 휴스턴, 로드니 킹에서 보듯이 제명에 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돈벼락이다.

돈은 마치 마약과 같다. 한번 맛을 들이면 끊기가 쉽지 않고 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30평짜리 아파트도 감지덕지하다가 자꾸 40평, 50평으로 올라가고 나중에는 100평짜리도 성에 차지 않는다. 돈 중독이다.

생각할수록 돈이란 고약한 물건이다. 과연 돈이 필요 없는 무자본주의 세상이 오기는 올 것인가?